

체석에 의해 유발된 급성 담관염 1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강릉아산병원
윤성규, 이승찬, 김현승, 박성오, 나병규, 천갑진, 김승웅

체석은 원인에 관계없이 만성 체장염에서 흔히 관찰되며 만성체장염의 발생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주로 알콜이 원인이 되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70% 정도가 특발성이다. 체석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체석에 의한 체관과 체장 실질의 압력증가가 통증과 배설상부의 허혈을 조장한다는 가설하에서 비롯되며 체석의 감입(impaction)은 체관의 손상과 상피파괴로 협착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 치료는 내시경을 이용한 체석제거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등 비수술적인 방법이 보편화 되어있으며 결석제거 후 체관조영술에서 잔류 체석 없는 체관의 정상화되 경우가 25%, 주체관 직경의 감소된 경우가 42%였다. 본 저자들은 체장 분비 효소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체석에 의한 담관염을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62세 여자가 5일전부터 발생한 심와부 동통, 발열,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고혈압 및 Parkinson씨 병으로 투약중이었으며, 특별한 가족력은 없었다. 내원시 혈압 130/80 mmHg, 맥박수 90회/분, 호흡수 25회/분이었으며 체온은 38°C였다.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공막에 황달소견 및 심와부에 인통이 있었으나 반반통은 없었고, 긴 및 비장종대 등의 소견은 없었다. 일반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14,000/\text{mm}^3$ 으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일반화학검사에서 AST/ALT는 321/612 IU/L, total Bilirubin은 5.5 mg/dL, r-GTP는 183 IU/L였고, Amylase/Lipase 72/35 U/L였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체장두부에 석회화와 체석, 체관확장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내시경적역행성 체관조영술에서 총담관과 간내담관에서는 경도의 확장 이외에 조영결손 등의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았으나 체관의 심한 확장과 체장 두부의 체관내 장경이 1cm 정도의 조영결손을 비롯한 나수의 조영결손들이 관찰되어 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제술을 시행한 후 basket 등을 이용하여 체석의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4차례 시행한 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체석의 제거 후 모든 혈액 검사소견이 정상화되었으며 현재 양호한 상태로 외래 추적 관찰중이다.

단기간 Praziquantel 치료에 효과적인 반응을 보인 *F. hepatica* 간농양 1예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학교실
허진국*, 김영관, 김은순, 김유선, 이정환, 문정섭

간질증(fasciolosis)은 간담도의 기생충성 질환의 하나로 드물게 사람에게도 기회감염을 유발하는 인수공통 질환이다. 간질증에 의한 간농양은 매우 드물며 효과적인 치료약제로 알려진 bithionol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저자들은 우상복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F. hepatica*에 의한 간농양으로 진단 받고 단기간의 praziquantel 치료 후 효과적인 반응을 보인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49세 여자 환자가 우상복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평소 건강하던 환자는 애번가 주변에 거취 하면서 평소 생선회와 해산물을 즐겨 먹은 것 외에 과거력에서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신체검진에서 우상복부 압통을 호소하였다. 김사실 소견은 혈색소 12.1g/dL, 백혈구 $8,930/\text{mm}^3$ (호산구 $5,340/\text{mm}^3$), 혈소판 $241,000/\text{mm}^3$, AST/ALT: 33/34 IU/L이었다.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 심한 호산구 증다증을 보였으나, 대변 총린 김사는 음성이었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저음영성 병변들이 군집한 양상을 보인 약 6 cm가량의 간농양이 관찰되었고, 조직 검사에서 Charcot-Leyden crystals이 관찰되는 호산구성 간농양의 소견을 보였다. Micro-ITISA에 의한 기생충 항체검사에서 fasciola 항원에 양성 반응을 보여 *F. hepatica* 간농양으로 진단하고 praziquantel 75mg/kg으로 2일간 치료하였다. 1달 후 시행한 추적 일반 혈액 검사에서 호산구 $2,150/\text{mm}^3$ 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농양의 크기가 3 cm 정도로 호전된 소견을 보였으며 환자의 증상도 소실되었다. 환자는 특별한 증세 없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